

# 국제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 세계적인 R&D 글로벌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산학연의 국제공동 R&D 활성화 및 정부 투자방향 정립을 위해 ‘국제산업기술지도’를 작성하였다.

‘국제산업기술지도’란 국제협력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제시하고 기술별 협력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R&D 국제협력의 종합청사진”인 것이다. 이번 작업은 정부가 최초로 핵심기술 수준에서 논문·특허 분석이라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객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산업기술(총 10,836개) 중에서 특히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큰 300대 기술을 선별하고, 이 기술과 관련된 인물 및 기관정보 등 국제공동 R&D를 위해 필요한 방대한 양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특히 6만여건, 논문 34만여건, 174개 국가의 10만여개의 기관 및 67만명의 연구자 정보, 주요국에 대한 R&D 동향정보 등을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20대 국가, 300대 기관, 1,000대 인물을

우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논문·특허분석 방법상 포함되지 않은 국가와도 국제기술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20대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R&D 시스템, 기술수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협력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20대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인도, 대만,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터키, 폴란드, 벨기에 등이다.

10대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정례적 협력채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기타 11~20대 국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독일 등 지방분권적 국가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산학연 클러스터,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프랑스, 인도 등 정부주도적인 국가와는 정부간 협력관계를 우선 구축한 후 민간간 협력을 유도한다.

프랑스, 이태리 등 지금까지 산업기술 협력경험이 적은 국가와는 우선 정례적 협력채널을 신설하여 양국간 협력수요를 발굴하며, 기존에 이미 협력채널이

가동중인 독일, 영국 등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한다.

EUREKA, FP 등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양자간 협력관계도 공고화할 것이다.

스페인, 캐나다 등과는 각각 남미 및 북미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상 유사성이 큰 일본과는 대학 등 개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기술, 시장, 인력을 포함한 total solution 형 협력으로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9월말까지 기초 데이터를 DB화하여 온라인상에 구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관심 분야의 기술 동향 및 협력파트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분야별(14대 산업원천기술 분류 기준) 및 국가별로 접근하여 기술정보, 기관 및 인물정보, 특허정보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만, 인물정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가 실시된다.

기술수명주기 단축을 감안하여 전략기관 및 인물정보는 매년, 특허분석을 통한 전략기술 도출은 격년, 방법론 포함 전체 시스템은 3년 주기로 업데이트된다. 7~8월중에는 R&D 유관기관 워크숍, 업종별단체 간담회,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제산업기술지도 작성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R&D 과제 선정 및 국가간 협력채널 구축, 고위급 순방시 의제발굴 등에 지도 작성 결과를 활용하고, R&D 관련기관과는 산업기술정책관 주관의 '국제기술협력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인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말까지 국가별 정책방향 이외에 기술별로도 세부 협력방안을 가미하여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방향,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활용 등),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방안, 국가 특성별 협력방안(기술선진국·경쟁국·개도국 등), 추진체계 등이다.

융복합 시대에 국내 산학연의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정부 산업기술 국제협력 추진의 방향성 제고 및 통합적·유기적 추진을 통한 성과 제고가 기대된다.

